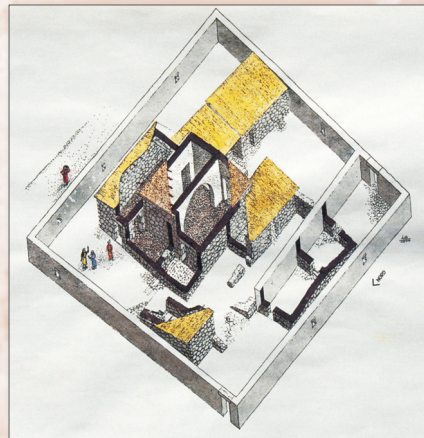




“카르파나움의 사도 베드로의 집에 가정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당시의 벽 일부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는 중풍 병자를 고쳐주셨고(마르 2,1-12),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회당(루카 4,31-37)도 이곳에 있다. 회당은 여러 계단을 거쳐 접근할 수 있고, 네 면이 돌로 세워졌다.” 이 본문은 순례자 에게리아의 더 오래 된 기록을(4세기) 반복하는 베네딕토회 베드로 부제의 글로서(12세기, 그리스도교의 본질인 카파르나움의 두 성소 베드로의 집과 회당에 보존된 기억을 보고하고 있다. 피아첸차의 익명의 순례자(570년경)도 “복된 베드로의 집터는 현재 대성당 자리다.”라고 기록하였다. 중세 시대와 그 이후에는 성지 순례가 매우 어려워져 이 도시에 대한 기억과 성지 기념 장소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게 되었다. 고대 히브리어 지명 ‘크파르 나움(Kefar Nahum)’과 비슷할 듯 말 듯한 ‘탈훔(Talhum)’이라는 아랍어 지명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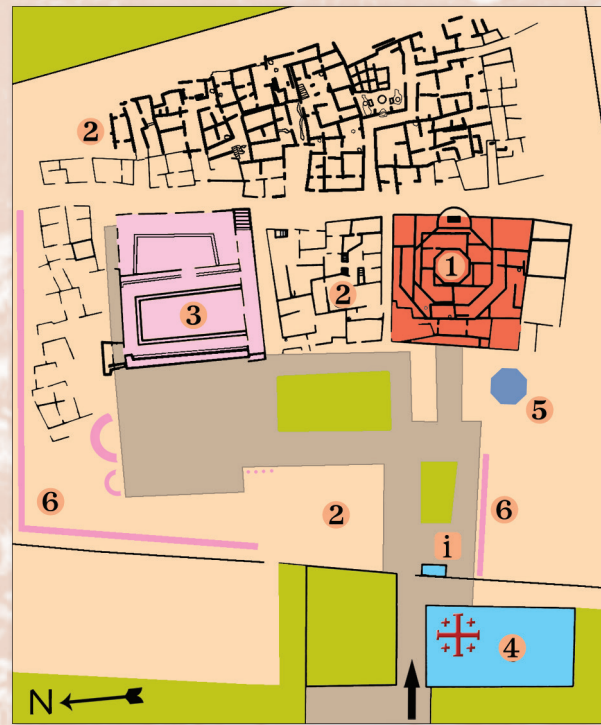
영국인 윌슨(C.W. Wilson)이 발굴한 첫 번째 건물은 회당이였다. 1894년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지 보호 관구는 유적이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고고학자 H. 콜(Kohl)과 C. 와칭거(Watzinger, 1905년), 빈텔린 힌터콰제에르(Wendelin Hinterkeuser, 1906-15년)와 과우덴지오 오팔리(Gaudenzio Orfali, 1921년)에게 좀 더 광범위한 발굴 작업을 맡겼다. 예수님 시대인 1세기로 추정되는 화려한 회당과 그보다 조금 후기인 2-3세기의 다른 장소들이 부분적으로 복원되었다. 회당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비잔틴 시대(5-6세기)의 모자이크가 있는 팔각형 성당 유적이 발견되었다. 1968-1992년에는 작은형제회 고고학자 비르질리오 코르보(Virgilio Corbo)와 스타니슬라오 로프레다(Stanislao Loffreda)

가 다시 발굴 작업에 착수하였다. 4세기의 비잔틴 시대의 성당은 가정 교회[Insula Sacra/Domus Ecclesia]라고 하는 어떤 거룩한 장소(베드로의 집)를 순례자들이 방문하여 경배하고 전례를 거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기원전 1세기 주거지에 속하는 주거지 입구의 홀은 기원후 2세기 말부터 카파르나움의 유다-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종교적 목적으로 보존해 왔다. 고대 전승이 베드로의 집으로 규정된 본래의 집안 구조 가운데 잘 알려진 곳은, 요리용 난로가 있는 북쪽 안뜰로서 지붕으로 올라가거나 여러 작은 방으로 통하는 계단들이 있고, 집 대문은 도로로 나 있다. 기념비적인 회당을 발굴해 보니 그 건축물의 정확한 연대가 기원후 5세기경으로 확인되었는데, 바닥을 이루는 지표층의 현무암을 통해 훨씬 더 이른 시기의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오래된 것은 기원전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4세기 가정교회 축적 도면

고고학 도면



카파르나움:

- 1. 성 베드로의 집과 비잔틴 성당 유적 2. 옛 카파르나움의 주거지 3. 유대교 회당(4-5세기) 4. ‘성찬례 약속 기념 수도원(작은형제회) 5. 팔각형 성당의 모자이크 6. 옛 유대교 회당 건축물들의 유적

갈릴래아 카파르나움(Capernaum)

성 베드로 기념 성당, 회당 유적



회당과 성당 주변에서 페르시아 시대(기원전 5세기)와 청동기 시대(기원전 삼십만-이십만 년)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도시의 집들이 많이 발굴되었다. 1991년에는, 베드로의 집의 귀한 유물들을 보호하고 몇 세기 동안 등한시한 그리스도교의 경신례를 복원할 목적으로 세워진, 이태리 건축가 일도 아베타(Ilido Avetta)의 새 성당 제막식을 보게 되었다.



Convento Promessa Eucaristica
Minzar Terra Santa
P.O.Box 2257
14122 Tiberias
ISRAEL



성지 개방 시간:
오전 8.00 - 오후 5.00
Tel.: 04-672.10.59
Fax: 04-671.59.06
www.custodia.org/en/sanctuaries/capernaum

이곳은, 엄숙하고 공손히 받들어 모셔야 할 거룩한 장소임을 명심하십시오.

예루살렘 말고는 카파르나움처럼 복음서에 여러 번 언급(17번)된 도시는 없다. 예수님께서서는 이곳을 ‘당신의 도시’로 만드셨다. 이곳에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뽑으시고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으며, 유대교 회당에서는 성찬례에 관해 설교하셨다.



카파르나움의 하루

[마르 1,21-39]

그들은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예수님께서서는 곧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나?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이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래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갔다. 그때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일어나 외딴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 그들이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온 갈릴래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중풍병자를 지붕을 벗기고 내려 보내다.

[마르 2,1-12]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사람들이 어떤 중풍 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의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 병자가 누워 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 보냈다. 예수님께서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 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 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생명의 빵에 대한 담화

[요한 6,22-35]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 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티베리아스에서 배 몇 척이, 주님께서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에 가까이 와 닿았다. 군중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그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라빠,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 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당신 아드님 안에서 모두가 구원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께,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강건해지도록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1. 교황님과 주교, 사제와 부제와 선교사들, 가르침과 선교의 사명을 받아 부르심 받은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선포하는 말이 항상 주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주님께서서 모두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총의 계획을 전하는 말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2. 고통 받는 이들을 돕도록 부르심 받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카파르나움에서 중풍 병자를 들것에 실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이웃들의 고통에 동참하며, 용기 있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 신앙을 증언하게 하소서. ◎

3. 저희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빛과 빵의 은총에 이끌려, 저희가 서로 용서하면서 충만하고 생생하게 성찬례에 참여하도록 용기를 주소서. ◎

✦ 모든 은총의 원천이신 자비로우시고 성실하신 아버지, 육체적 영적 질병으로 심하게 상처 입은 인류를 돌보시어, 모두가 성령의 감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 희망으로 삼고, 삼위일체적 사랑의 친교를 본받아 온 인류가 한 가족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아드님이지사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